

6/6/21

설교 말씀: 출애굽을 이끌 이스라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3장 1-22 절

(출 3:1)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출 3:2)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 3:3)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출 3: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 3: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 3: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출 3: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출 3:8)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출 3:9)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출 3: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 3:11)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 3:12)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 3:13)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출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 3: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출 3:16)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출 3:17)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출 3:18)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출 3:19)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출 3:20)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 3:21)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 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출 3:22)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본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 대장정인 출애굽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하셔서 출애굽 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출 2:23)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출 2:24)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 2:25)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산지 40 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출 3:1)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매

모세는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친 애굽 사람을 죽인 후 그것이 들통이 나자 애굽 궁전에서 나와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장인의 양무리를 치며 40 년을 살았습니다.

40 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 7:30)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사십 년이 차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사십 년이란 기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은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고 익히며 애굽 궁전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모세도 목축을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40 년을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며 살았던 그에게 이 40 년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그 시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 대장전인 출애굽 프로젝트를 위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40 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익히도록 한 후 또 40 년 동안 그를 낮추시는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견디기 힘든 굴욕적인 세월을 인내하며 견뎌내야 했습니다.

한 날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시내산으로 알려진 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 직후 이곳에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언약의 증표로 율법을 주신 연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 나무가 타지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기해서 떨기 나무 가까이 가봅니다.

(출 3:1)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출 3: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 3:3)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나 천사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절에 나오는 여호와 사자는 성육신하시기 전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떨기 나무는 아주 불품없는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노예로 전락하여 시련과 환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불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가리킵니다.

불꽃이 떨기 나무로부터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전락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멍에를 끊고 그들에게 해방과 기쁨을 제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사탄 마귀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의 예표입니다.

모세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기이히 여겼습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타지 않은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사는 400 년 동안 노예로 전락해 심한 학대 속에 불같은 시험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라도 그들은 쇠퇴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여 심히 강대해졌습니다.

타서 사라지기는 커녕 더욱 번식하고 창성해지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400 년전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신 이래로 약속대로 한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 46:3)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 46: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이 작정한 출애굽 대장정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출 3: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 3: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 3: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출 3: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출 3:8)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있다'고 하시며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인 우리의 고통과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우고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때가 차면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져내어 당신이 약속하신 땅 천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지도자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출 3:9)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출 3: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완곡히 거절을 합니다.

(출 3:11)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출애굽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명하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내십니다.

사명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거로 그가 장정만 60 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이
산 곧 시내산에서 당신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 3:12)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증거까지 제시하셨건만 모세는 선뜻 응하지 못합니다.

그는 오히려 지금 자신에게 현현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출 3:13)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출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 3: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먼저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로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과 결부된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과 그럴지라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될 것이며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재물을 갖고 나올 것임을 부연 설명해 주심으로써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출 3:19)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출 3:20)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 3:21)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 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출 3:22)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출애굽을 이끌 이스라엘 지도자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를 그토록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응하십시오.

믿고 순종할때 능력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